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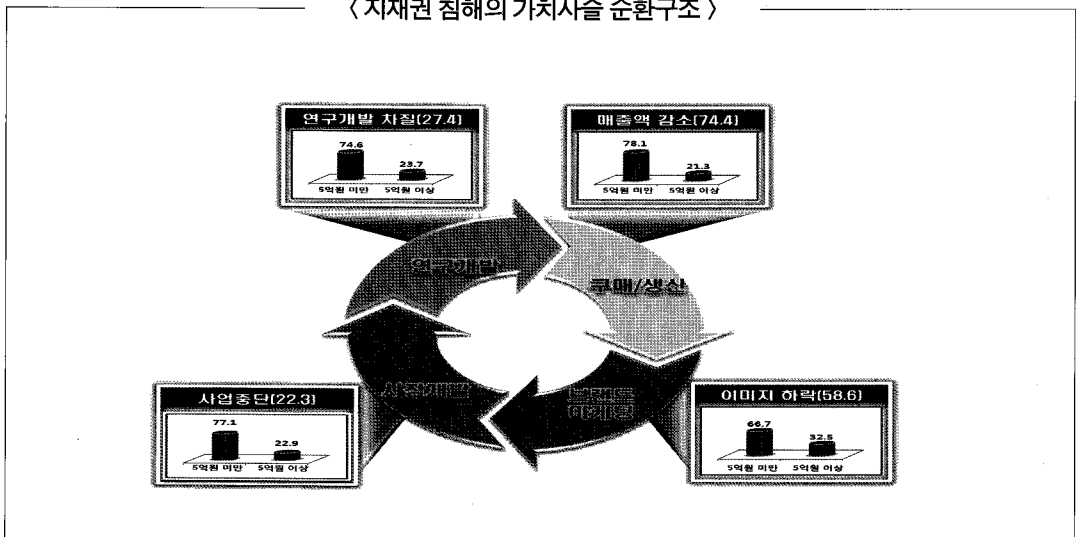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경영 및 수출애로 발생

최근 2년간 지재권 피침해 검증 추세, 5억 이상 매출감소 기업이 21.3%에 달해

- 특허청(청장 고정식)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실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00년부터 ‘09년 까지 국내기업 중 22.1%가 국내외에서 지재권으로 인한 침해를 입었고, 9.9%는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또는 침해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310개사 심층방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IP = 무형자산 ⇒ 핵심자산’ 추세를 반영, 지재권 관련 피해가 직접적인 소송비용 부담 외에도 R&D, 사업화, 이미지(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의 가치사슬 순환구조〉



-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등)한 경우' (80%)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피침해 발생국가는 중국(58.3%)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31.7%)이며, 심층 조사대상의 59.7%(310개사 중 185개사)가 향후 지재권 침해를 통보받거나 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및 수출전략에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취약한 대응역량을 고려하여 수출기업 사전 리스크 분석,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등 분쟁 사전예방 정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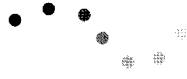
조사개요

- 조사내용 : '00 ~ '09년간 국내 기업의 국내외 지재권 피침해 및 침해 현황
- 조사대상 : 최근 10년간('00 ~ '09) 3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국내기업 49,955개 → 총 6,013개 기업이 응답
- 조사방식 : 1차 조사는 전화조사(6,013개사 유의 추출), 2차 조사는 피침해·침해 발생기업(310개사)을 방문하여 세부현황 심층 인터뷰 조사(복수응답)
 - ※ (1차조사) 기업 일반현황(지재권 현황 포함)과 피침해·침해 여부 조사
 - ※ (2차조사) 선별된 기업 대상으로 피침해·침해 상세현황(피해규모 등)을 조사

주요 결과

1. 지재권 관련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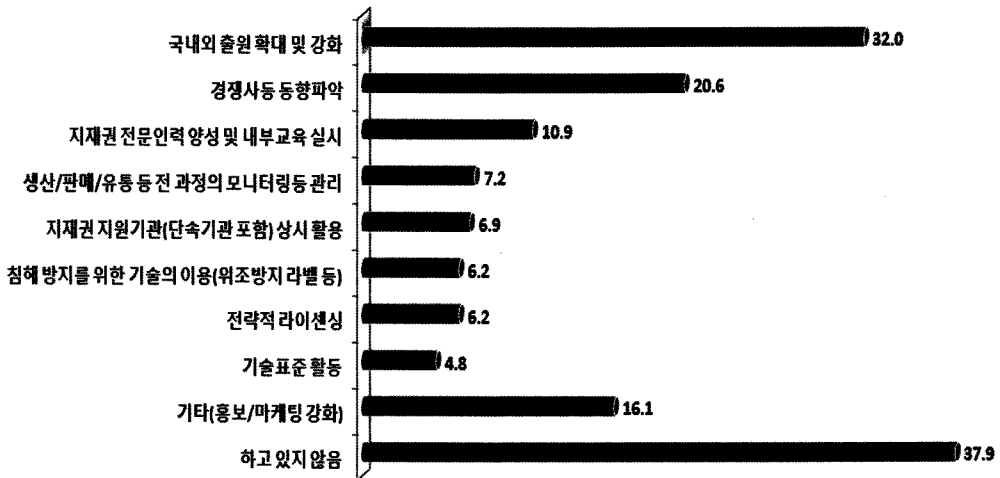
- 지재권 활용 대상지역 및 지재권 관련비용
 - 우리 기업이 지재권 활용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외 지역은 중국(37.8%), 미국(25.3%), 일본(18.4%), EU(7.3%) 순으로 조사됨
 - 지재권 관련 연간 지출 비용(출원·유지·등록 등)에 있어서는, 1억원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95.7%임



■ 지재권 사전조사 및 예방활동

- 해외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시 36.9%(2,050사 중 756사)의 기업만이 경쟁자의 지재권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기업들은 아무런 지재권 보호 예방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37.3%로 나타남

〈지재권 사전예방활동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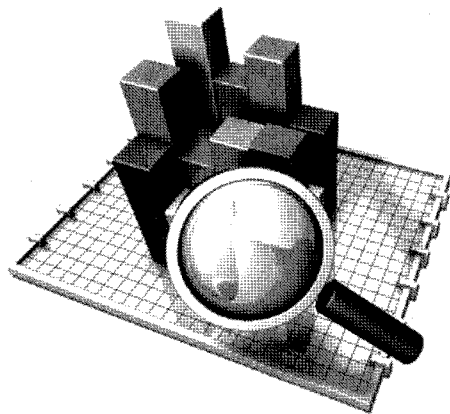
※ 기업의 사전예방 활동 포트폴리오에서 전략적 라이선싱(6.2%)이나 기술표준화(4.8%)를 통한 지재권 보호 사전 예방 활동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남

2. 지재권 피침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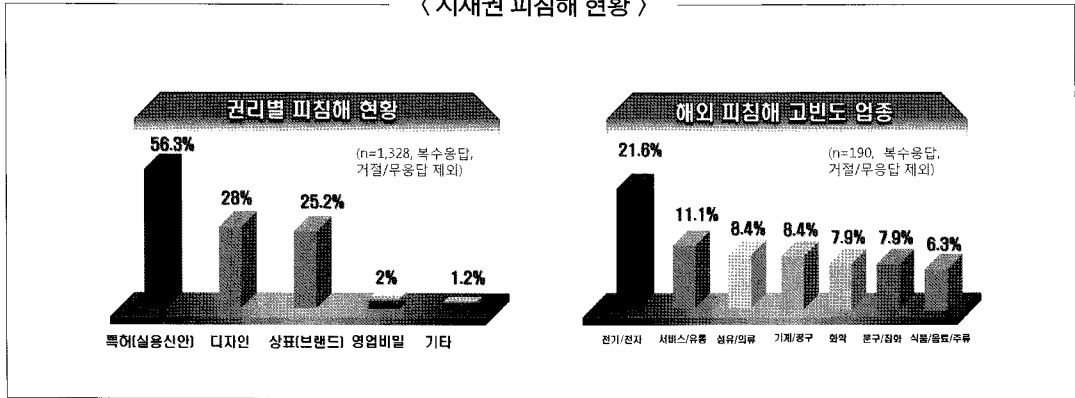
■ 피침해 총괄현황

- 응답기업(6,013) 중, 1,328개 기업 (22.1%)가 '00~'09년간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발생지역 구분 : 국내 83.1%, 국내외 8.2%, 해외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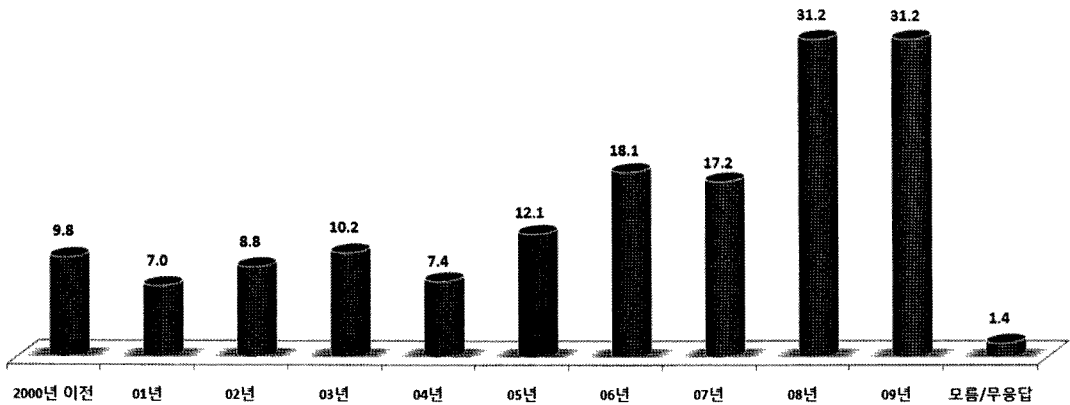
〈지재권 피침해 현황〉



■ 피침해 시기 및 형태

○ '08년(31.2%)과 '09년(31.2%)에 피침해 사례가 집중되는 등 최근 빈발

〈피침해 시기(연도별)〉



○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모방 등)한 경우' (80%)가 월등히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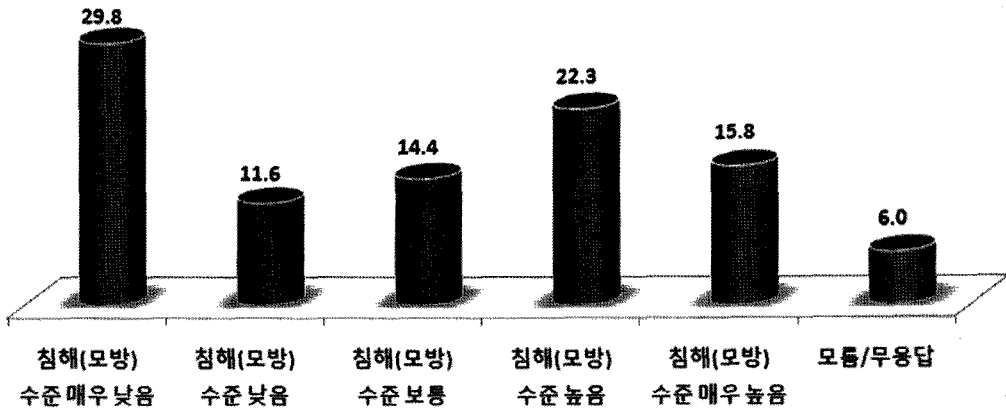
(n=215, %, 복수응답)

구 분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무단사용(생산 등)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무단 유통(수출입포함), 판매등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과 유사한 지재권을 출원하여 사용	현지에 미등록한 지재권을 무단으로 선 출원
백분비	80.0	20.5	18.1	5.1

○ 해외 피침해 발생국가는 중국(58.3%)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구분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남미	EU	러시아	중동	영국	필리핀	호주	이라크	스페인
백분비	58.3	5.6	5.6	5.6	5.6	4.2	4.2	4.2	1.4	1.4	1.4	1.4	1.4

○ 피침해 상대방의 지적권 침해(모방) 수준은 '높다' 이상이 38.1%임



○ 지적권을 침해당한 사유로는 '자사 제품의 브랜드 가치 상승' (60%)이 가장 높았음

(n=215, %, 복수응답)

비고	자사 제품의 브랜드 가치 상승	소극적 대응 및 지적권관리소홀	해당국의 법제도 미비 및 국민들의 지적권인식부족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에 대한 관리소홀	해외 지적권출원 및 등록의 소홀
백분율	60.0	27.4	17.2	15.3	5.6

■ 피침해 손해유형

○ 피침해 손해로는 시장점유율 및 매출감소(74.4%)가 가장 높은 빈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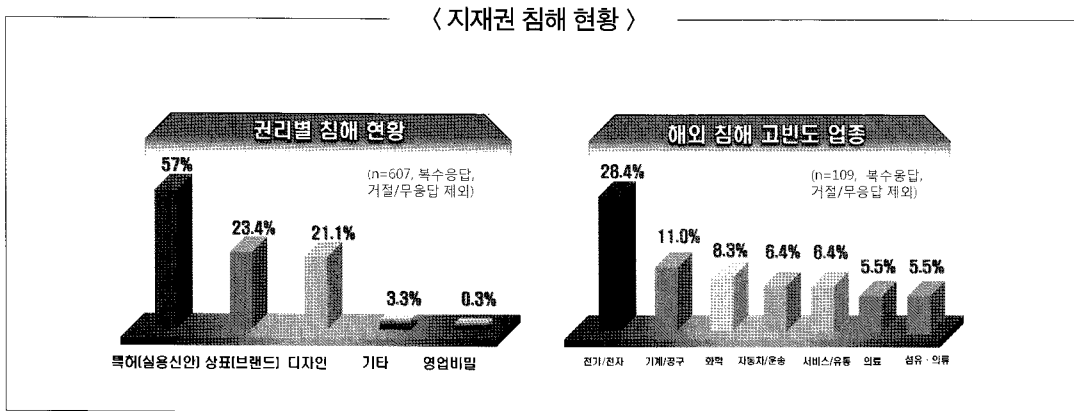
(n=215, %, 복수응답)

비고	시장점유율 및 매출감소	대외적으로 자사 이미지 하락	법정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지속적인 연구개발 차질	사업중단
백분율	74.4	58.6	50.2	27.4	22.3

3. 지재권 침해 현황

■ 침해 총괄 현황

- 응답기업(6,013) 중, 607개 기업(10.1%)가 '00~'09년간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또는 침해통보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침해 시기 및 가능성

- '07년부터 매년 20% 수준을 넘고 있음

